

텔레소매틱

— 끊어지지 않는 전체성(2부)

| 래리 도시 | 안성윤 옮김 |

텔레파시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간의 의식적 연결이라면 텔레소매틱이란 신체적 연결성을 말합니다. 사랑하거나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 간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통증을 비롯한 어떤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신체는 과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식적 정보’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그리고 나서 다른 테스트들도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테스트마다 각각 등급을 매겼고 하나만 빼고 모두 “확실히” 또는 매우 확실히”으로 매겨졌다.

란다 테스트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즉, 성인보다 어린이한테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있으며, 삭막한 실험실보다 피험자의 거주지나 편안한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됐을 때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의식 연구에서 그간 공공연히 무시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생태학적 타당도(통제된 실험실에서의 연구결과가 현실 세계에서 일반화되는 정도)의 중요성을 재차 배워야 했다.

텔레소매틱 이벤트들은 란다 쌍둥이들 손에 동시에 화상자국이 생겼을 때처럼 그저 작은 우연이나 신기한 일 정도로 보여지곤 한다. 그러나 텔레소매틱 해프닝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의미를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많다. 이 사례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텔레소매틱 연결에는 생존적인 가치가 있으며 아마도 그래서 인간에게 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의식 연구가인 플레이페어가 수집한 사례 중에 태어난 지 3일 된 일란성 쌍둥이 리키와 데미안의 일이 있다. 아기 엄마인 안나는 밤중에 수유를 하고 있었다. 리키는 그녀 앞에 있었고 데미안은 그녀 옆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그녀가 리키의 기저귀를 갈려고 하자, 갑자기 리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생후 3일 밖에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안나는 “리키가 정말 순한 편”이라고 말했고 데미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아기가 기저귀도

깨끗하고 방금 수유도 마쳤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의문이었다. 리키는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안나는 ‘쌍둥이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곧 바로 데미안을 체크하려고 옆을 내려다봤는데 놀랍게도 아기는 거기에 없었고 뒤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는 데미안을 붙잡았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이 팍 물려있는 것을 보았다. 데미안은 질식하고 있었다. 안나와 그녀의 딸은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앰블런스를 불렀다. 이 끔찍한 일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 안나는 “리키가 데미안의 목숨을 구했어요. 리키가 소리치고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데미안을 찾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너무 늦어버렸을 거예요”라고 말했다.⁴¹

쌍둥이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형제들이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플레이페어가 보고한 사례에서 자주 등장한다. 한 예로 5개월 된 한 일란성 쌍둥이 아기가 10시가 되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15분 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울음을 뚝 그쳤다. 그 아기의 쌍둥이 형제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었다. 엄마는 주사를 맞은 시각이 10시라고 말했다. 비슷한 리포트에서, 다른 쌍둥이의 엄마는 한 아이가 얄전히 예방 접종을 맞고 있을 때, 다른 한 아이는 엄청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했다.⁴²

성인이 된 일란성 쌍둥이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고계 명사 글로리아 모건 반더빌트(1904-1965)와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텔마 모건 퍼네스(1904-1970)의 사례가 그러하다. 그들의 자서전 『이중 노출Double Exposure』에서 글로리아는 뉴욕에 체류 중이고, 텔마는 유럽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일을 얘기했다. 글로리아는 5월에 출산 예정인 텔마와 함께 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잡고 있

었다. 하지만 3월 말, 글로리아는 점심식사를 하러 외출 준비를 하다가 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약속을 취소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꼭 애를 낳는 것 같다고 했었죠.”라고 말했다. 글로리아는 잠깐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복통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전보가 도착해있었는데 텔마가 조기 출산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었다.⁴³

플레이페어가 수집한 몇몇 사례에서처럼, 공유되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인 경우도 종종 있다. 미국의 한 학자가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뉴욕 시간으로 새벽 6시, 그녀는 갑자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애리조나에 있는 쌍둥이 동생에게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룸메이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애리조나 시간으로 새벽 세시에 쌍둥이 동생의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자동차 폭탄이 폭발해서 동생집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엄마로부터 전해 들었다. 다행히 쌍둥이 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무사했다. 애리조나에서 차가 폭발한 시간은 그녀가 뉴욕에서 놀라 잠에서 깨어난 시간과 일치했다.

텔레소매틱 연결이 쌍둥이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플레이페어가 언급한 것처럼 쌍둥이들에게서는 “텔레파시 신호가 아주 강해서 정보뿐 아니라 정서적·육체적 느낌과 화상, 명 같은 증상까지도 전달이 된다.”⁴⁴ 그렇지만 일란성 쌍둥이들의 30%만이 이런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다.⁴⁵ 정서적 친밀함은 쌍둥이 커넥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이 연결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이 쌍둥이들 간에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되는 것은 우울함, 병, 사고, 죽음 같은 나쁜 소식이다.

직관적 산부인과학

텔레소매틱 연결은 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서적·육체적으로 그것을 감지하는 의사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중 놀라운 사례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산부인과 의사 래리 킨치로이의 일이다.⁴⁶ 산부인과 트레이닝을 완수하고 난 후, 킨치로이는 한 메디컬 그룹에 들어가 약 4년 동안 평범하게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병원으로부터 그의 환자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평소처럼 지시를 내렸고, 초산이기 때문에 출산이 몇 시간 뒤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정원에서 낙엽을 치우는 동안 갑자기 킨치로이는 병원에 가 봐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분만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간호사로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자궁문이 5센티 정도만 열려 있으며, 몇 시간 후에나 출산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더욱 강해졌으며 킨치로이는 가슴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분을 사춘기 때 첫사랑이 깨졌을 때의 기분-아프도록 슬프고 우울한 느낌-과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무시하려고 할수록 그 기분은 더 강해졌고 마치 익사할 것만 같았다고 한다. 참을 수가 없어 그는 차에 올라타고 곧바로 떠났다. 병원에 가까워지자 킨치로이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청난 안도를 느꼈다고 한다.

그가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가자, 간호사가 마침 환자 분만실에서 나

오고 있었다. 그녀가 왜 왔는지 묻자, 킨치로이는 솔직하게 웬지 모르
게 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는 산모의 자궁문이 7센티 정도 열렸다고 말했다. 그 순간, 분만실에서
비명이 들렸다. 분만실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출산이 임박했을
때, 산모의 비명에 특정한 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분만실에 달
려 왔을 때, 산모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있었다. 나중에 간호사가
어떻게 예정보다 일찍 출산할 줄 알고 왔는지 물었을 때, 그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킨치로이는 자신이 받는 느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런 직관적인 기분을 수백 번 경험하였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였다. 병
원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면 그는 이미 옷을 갈아입었거나 병원으로 향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전화를 받자마자 “알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라고 말하곤 한다. 이제는 이것이 흔한 일이 되어 산부인과 스
태프들은 신참 간호사들에게 “킨치로이 박사님을 불러야 되면 그냥 생
각만 하세요. 그러면 오실 거예요.”라고 말한다.

최근에 그는 느낌을 받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분만실에 있는 자신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신참 간호사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잘 되고 있
는지 물었고 그녀는 환자가 마취제를 맞고 편하게 쉬고 있으며, 태아
의 심박수 패턴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게 확
실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방금 전에 체크했고 괜찮다고
말했잖아요.”라고 말했다. 킨치로이는 다른 간호사가 “박사님께 가슴
에 통증이 있는지 물어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어리둥절해하며 신
참 간호사는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킨치로이는 신참
간호사가 자신의 대답을 고참에게 전달하는 것을 들었다. 그 고참 간
호사는 “그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가서 환자를 다시 체크해 보

1973년 영국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지의 설문조사에서
주류 과학자들을 상대로 초감각적 인식ESP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응답자 1500명 중 67%가 ESP가 확실한 사실 내지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80%는 초자연 연구가 마땅히 과학연구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말했다.

신참 간호사는 킨치로이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고 환자를 확인하러 갔다. 잠시 후, 그는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기가 나오고 있다며 서둘라고 소리쳤다.

킨치로이 박사의 경험들은 신체적 느낌들이 어떻게 하여 중요한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이러한 텔레소매틱 현상들은 마치 떨어진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휴대전화와 같다. 하지만 그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버라이존이나 AT&T 같은 통신회사가 아니라 서로 떨어진 사람들을 통합하는 집합적 차원의 의식이다.

대기실의 마녀들

킨치로이 박사가 매우 특별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킨치로이 박사의 견해에 공감하는 의사, 헬스 케어 업계 종사자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의학박사 로버트 보브로우Robert S. Bobrow는 그의 저서 『대기실의 마녀들The Witch in the Waiting Room』에서 수많은 환자, 간호사, 동료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마음의 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몇몇은 위칸Wiccan(마법 숭배)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

문에 그런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보브로우 박사는 “누가 알겠어요? 매일 의사로서 출근해서 일하는 곳에 마녀들이 가득하다라... 모르는 일이죠.”라고 말했다.⁴⁷

콜린 래Colleen Rae는 보브로우 박사 주변의 비밀스러운 위칸wiccan이나 영매와 달리 공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영적 기반 카운셀러이다. 그녀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심령술사가 된 케이스라고 여긴다. 래는 영매였던 할머니와 함께 자랐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타인의 기분이나 생각을 감지할 수 있는 ‘임패스empath’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래는 며칠 동안 목과 어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목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래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

어제도 똑같았다. 몸을 풀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지 알아보았다. 대화 도중, 엄마는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는데 의사의 말로는 그것이 자신이 먹고 있는 항암제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엄마한테 증상을 설명해 보라고 하였다. 엄마는 내가 느꼈던 느낌을 말해주었다. “엄청 아팠죠?”라고 묻자 엄마는 그렇다고 했다.

한 번은 래에게 갑자기 치통이 생겼다. 그 통증은 엄마가 자신의 씹은 이를 뽑는 순간 멎었다.

“임패스로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라고 래는 자신의 저서 『Tales of a Reluctant Psychic』에서 밝혔다.⁴⁸ “하지만 오래전에 저는 이런 것 없이는 심리 영성적 카운슬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널리 퍼진 관심

이미 보인 것은 안 보일 수가 없다. - 속담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경험과 믿음을 알리고 싶어 한다. 보브로우의 정신의학과 교수, 레지던트, 다른 의학교수, 의과대학 학장들을 상대로 한 1980년도 미국 정신의학저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의 설문조사를 인용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심령학을 정신의학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설문조사를 한 저자들은 “설문 결과는 수많은 초자연적 현상들이 실재하고, 초자연적 힘은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며, 비-의료적 요소들은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학문은 정신 의학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⁴⁹라고 말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런 추세를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의사나 의학교육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은 과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의학을 암흑시대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은 몇몇 변절자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임상 의학과 학문 의학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2004년에 이뤄진 또 다른 전국적 설문조사에서는 각 분야의 의사 1,100명에게 물었다. 조사자들은 응답자의 74%가 소위 기적이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났고 73%는 그것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기적’이란 자연 법칙의 위반이 아니라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기적이란 자연을 거스르는 것

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에 그들도 동의할 것이다. 나 또한 같은 견해다.) 의사의 59%는 개별적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 51%는 단체로 기도를 한다고 했다.⁵⁰ 이런 추세를 지적하며 작가 스티븐 A 슈워츠는 “보통 비국소적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되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생각이 일반인과 의학계의 생각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다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⁵¹

과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73년 영국 〈뉴사이언티스트 New Scientist〉지의 설문조사에서 초감각적 인식 또는 ESP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조사는 주류 과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1500명 중 67%가 ESP가 확실한 사실 내지 상당히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80%는 초자연 연구는 마땅히 과학 연구의 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미국 대학교수 1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연 과학자 중 55%, 사회 과학자(심리학자 포함) 중 66%, 인문학자 중 77%가 ESP는 확실히 존재하거나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다.⁵³

따라서 초현상에 대한 믿음이 의사, 과학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드물다는 주장은 난센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 연구의 깊이에 관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회의론자들이며 사상적인 이유로 반대한다.⁵⁴⁻⁵⁶

샤워 커튼에 핀 곰팡이?

지금까지 살펴본 뉴런 대 뉴런, 뇌 대 뇌, 사람 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쩌다 생긴 기이한 일들이 아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

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분리를 넘어 시간, 공간, 물리적 장애물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줄이 있다는 암시다. 이러한 연결에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시사한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끊어지지 않는 전체성을 가치 있게 생각해왔다. 플라톤은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인간 욕구의 표현이다. 그 이유는 인간 본성이 원래 하나였고 우리가 전체이기 때문이며, 전체성에 대한 열망과 추구가 바로 사랑이다.”⁵⁷

공감과 사랑을 통한 하나 의 경험은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과도한 물질주의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치료제이다. 예를 들어 천체 물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린들리는 “우리 인간은 아주 조그만 바위 위에 붙어 있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일 뿐이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샤워 커튼에 핀 곰팡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⁵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주를 더욱 이해한다고 느낄수록 그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⁵⁹ 이런 입장은 우리가 다루었던 경험적 발견을 모조리 무시해야만 성립된다. 그들은 종종 과학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제외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이런 암울한 관점은 훌륭한 과학자들로부터 자주 반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는 “나는 의식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의식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⁰ 그리고 저명한 물리학자 제럴드 파인버그는 “그런 비국소적인 정신적 현상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물리학의 근본 공식을 바꾸지 않고도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⁶¹ 요컨대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다른 일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물리 공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한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우리가 본 의식의 비국소적 표명을 보여주는 실험들같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나타난다. 이 사실은 과학적 물질주의에 지친 세상에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인간을 샤워 커튼에 핀 곰팡이와 비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뉴스가 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전체성

사랑은 비국소적 연결의 입구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고립, 분리, 개성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이다. 개성이 연결과 통합을 보완하는 귀중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개성이 지나치면 거대한 에고ego가 되어 우리가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D.H. 로렌스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증오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사랑의 반대는 바로 개성이다.”⁶²

이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분리를 극복한 결과는 실험실에서도 측정 가능한 효과를 낳는다. 프린스턴 대학 이상현상 연구소PEAR에서 30년 간 진행한 실험적 연구에서 프린스턴 공대 학장이었던 로버트 잔Robert G. Jahn과 동료들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커플들은 숫자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무작위 숫자들의 순서를 전달하는 특별한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게다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요약하자면, 잔은 “가장 유력한 것은… 오퍼레이터와 기계 사이 또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독자성이 흐릿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형태의 사랑의 비결이

기도 하다. 커플이 서로를 위해 자기중심적인 이해관계를 버리는 것이다.”⁶³ 간단히 말해서 사랑은 물리적 세상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국소적,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이 뉴런에서 장기 기관을 거쳐 사람에게까지 여러 단계의 복잡한 특징들에서 설명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원칙을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질적인 분야를 넘나드는 이 일관성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특성이자,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의 연결성은 실재하고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때때로 우리의 빛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우할 때 다시 타오른다.”라고 말했다.⁶⁴ 우리의 연결성은 옵션이 아니다; 이것은 의무적이고 내재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깨달음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이다. (끝) 

- 이 글은 『Unbroken Wholeness : The Emerging View of Human Interconnecti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래리 도시 Larry Dossey, MD | 〈익스플로어Explore〉지 편집장

역자 | 안성윤 | 〈지금여기〉번역위원. 미국 위스콘신 주 노틀담고등학교 수료. 미국검정고시 통과. 일본 조치대학 국제교양학부 재학.

참고문헌

41. Playfair GL, Twin Telepathy : the Psychic Connection, London, UK : Vega; 2002, p. 55-56.
42. Playfair GL, Twin Telepathy : the Psychic Connection, London, UK : Vega; 2002, p. 12-13.
43. Vanderbilt G, Furness T. Double Exposure : A Twin Autobiography. London, UK : Frederick Muller; 1959, p. xi-xii.

44. Playfair GL. Twin Telepathy : The Psychic Connection. London, UK : Vega; 2002, p. 16.
45. Playfair GL. Twin Telepathy : The Psychic Connection. London, UK : Vega; 2002, p. 51.
46. Kincheloe L. Intuitive obstetrics. *Altern Ther Health Med*. 2003;9 : 16-17.
47. Bobrow RS. *The Witch in the Waiting Room*. New York, NY : Thunder"s Mouth Press;2006, p. 244.
48. Rae C. Tales of a reluctant psychic. Available at : <http://www.joyflow.com/reluctantpsychic.html>. Accessed July 15, 2012.
49. Dean SR, Plyler CO, Jr, Dean ML. Should psychic studies be included in psychiatric education? An opinion survey. *Am J Psychiatry*. 1980;137 : 1247-1249.
50. Survey of physicians" views on miracles. New York, NY : The Louis Finkelstein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2004.
51. Schwartz SA. An American profile. *Explore (NY)*. 2005;1 : 338-339.
52. Evans C. Parapsychology - what the questionnaire revealed. *New Sci*. 1973;57 : 209.
53. Bem DJ, Honorton C. Does psi exist? Replicable evidence for an anomalous process of information transfer. *Psychol Bull*. 1994;115 : 4-8.
54. Hansen GP. *The Trickster and the Paranormal*. Philadelphia, PA : Xlibris; 2001, p. 148-161.
55. Hansen GP. CSICOP and the skeptics : an overview. *J Soc Psychical Res*. 1992;86 : 19-63.
56. Carter C. *Parapsychology and the Skeptics*. Pittsburgh, PA : Sterlinghouse; 2007.
57. Plato Q. Quoted in : Wilber K, eds. *Eye to Eye : the Quest for the New Paradigm*. Garden City, NY : Anchor/Doubleday; 1983, p.234.
58. Lindley D. Response to Robert Lanza. Available at : <http://www.usatoday.com/cleanprint/?129899283637>. Accessed July 13, 2012.
59. Weinberg S. *The First Three Minutes*. New York, NY : Basic Books; 1993, p. 154.
60. Planck M. *The Observer*. London, UK, 1931.
61. Feinberg G. Precognition-a memory of things future. In : Oteri L, ed. *Quantum Physics and Parapsychology*. New York, NY : Parapsychology Foundation; 1975, p.54-73
62. Lawrence DH Quoted in : Michael Bell, D. H. Lawrence : *Language and Being*.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51.
63. Jahn RG, Dunne BJ. *Margins of Reality :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the Physical World*. New York, NY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7, p. 343.
64. Schweitzer A. Quoted in : <http://www.brainyquote.com/quotes/quotes/a/albertschw161528.html>. Accessed November 8, 2012.